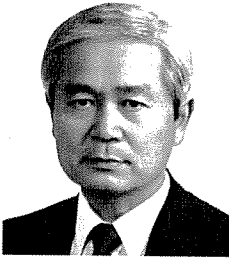


대학의 국제화 시급하다



鄭用昇
〈한국교원대 교수/환경과학〉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1만달러, 수출은 1천억달러가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러한 민족적 성취야말로 20~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해본 것으로 과연 꿈만같은 행운이며 매우 자랑스러운 것들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중에서도 특히 전자, 조선, 자동차공업 등의 분야는 이미 선진대열에 진입하였으며, 체육경기분야는 많은 금메달과 함께 국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21세기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세계의 문화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과업이며 소망이기도하다.

위와 같은 희소식에 비해, 일부 국민의 정신상태는 흐리멍덩하고 혼돈상태에 있으며 책임감, 사명감 및 정의감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여러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는 물론 부도덕하고 뼈뿔어진 것들도 합리화시키려는 속성이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을 잃고 있다. 이는 지난 30여년간 하극상이 지배하고 무인 독재가 정당화된데도 큰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국민의 부정적(negative)인 양상은 우리나라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외국 유학생 30%선 유치

우리의 선진화는 국민의식의 제고와 도덕성의 회복 및 생산성의 증대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의 실현과 성취는 근본적으로 국민교육의 성공에 달려있으며, 특히 대학이 상아탑으로서

의 제구실을 해야하고, 많은 대학들이 국제화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의 필요성과 함께 갖가지 주장과 논리가 퍼져 나오나, 국제화와는 관련이 없거나 생산적이 아닌 자들이 기회를 놓칠세라 '나도 한다'는 말뿐이며 실제 행동은 공염불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학이 부정적인 양상을 버리고 국제화 되는데는 다음 3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의 탁월성, 둘째 단체의 우수성, 셋째 행정-재정-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세계는 지금 무한 경쟁시대에 있으며, 대학이야말로 지식인의 집합체로써 가장 탁월한 전문인들이 모인 곳이므로 치열한 국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외국의 일류대학은 국제대학이며 노벨상 수상자는 물론 한림원과 과학원 등 각종 지식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며 세계적인 기여를 도맡아 하는 최우수 단체이다.

우리나라의 각 대학교에도 우리의 한림원 과학자들과 학술원 학자들이 많아야 하는 등 우수교수의 확보와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우수 교수와 우수 과학자들'이 많을수록 그 대학은 자연스럽게 국제화가 될 수 있다.

한편 대학의 운영 및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대학들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회로의 기여를 위해 모든 행정을 과학적으로 시행토록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국제적으로 우수

지금 우리의 대학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보직 우선주의가 지배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 우리 대학의 국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관료행정을 속히 청산하고 외국 유학생을 30% 수준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의 대학연구비에 대한 대폭 증액이 있어야 하겠다.

한 교수가 많지 않으며, 외국 학생들이 평균 1~2명도 되지않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국제화는 아직 요원하고 꿈인 것만은 틀림없다. 외국 유학생 1명이라도 받아들이는 교육부와 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고 본다.

권위주의적 관료 행정을 속히 청산하고 외국 유학생이 재학생의 30%가 되도록 유학생의 선발을 유능 교수들에게 일임하고 가능한 모든 국제화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대학은 국제화된 대학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補職에 눈독들이지 말아야

미국의 tenure제도는 교수들의 생산성과 기여도를 매우 높이고 있다. 우수 논문을 많이 집필하고 생산적인 학자만이 조교수와 부교수가 될 수 있게 하는 철학은 미국 대학을 수준높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의 1~2명 교수 밑에 수십명의 강사와 연구원을 두는 제도 역시 교수와 대학의 질을 극대화하고 대학의 순수함과 우수성을 유지케한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한번 취직하면 2~3년에 한번씩 조교수에서 부교수 그리고 교수로 승진되는데 이러한 후진적인 관행을 하루 속히 청산하고 외국제도를 속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안일한 풍토에서 탈피하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들의 연구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조교수는 물론 교수의 진급도 생산성(SCI 등의 평가)과 기여도에 의거해서 승진인사 때마다 20~30%를 탈락시킨다면 우리의 대학은 약 10~20년 안에

원하는 국제화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연구평가는 허울좋은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림원, 학술원 등의 최우수 학자들이 수행하거나 모니터링하는 제도의 설정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학계의 하극상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구다운 연구가 수행되어 훌륭한 결과가 나오고 그 대학과 연구소에 국제적이며 학문적인 전통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보직은 2년으로 제한시키고 권한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인사는 현재의 총장과 보직교수 위주로 결정하는 것을 그만하고 우수교수들이 모여 돌아가며 인사를 결정하면 대학은 우수한 신입교수를 영입할 수 있다. 현재의 인사체제는 각종 비리가 많이 있음을 볼때, 인사는 생산적인 우수교수들에게 일임하여 그 대학을 살리고 국제화시키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우리의 대학도서관들은 직원이 5시에 퇴근하면 도서관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을 밤 12시까지 열어놓고 학생들이 도서관의 책으로 숙제하고 시험준비하며 연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하루 속히 만들어주어야 선진화가 되고 또 외국학생들이 들끓는 국제화된 대학이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정부의 연구투자(과학기술연감, 1994)는 주로 정부출연연구소에 집중(79.0%)되고 있으며 대학에의 투자는 매우 인색(10.8%)하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52.7%를 대학에 투자하고 있으며, 독일 40.2%, 영국 32.9%, 프랑스 28.1%, 미국 22.9%이므로 선진국은 대학에 큰 희망을 거는 반면, 우리의 정부는 대학과 교수를 멀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된다. 선진국처럼 대학을 위한 연구투자의 대폭적인 증액은 결과적으로 유능교수와 대학의 국제화에 첩경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대학들의 국제화는 우리나라의 선진화와 국민의 새로운 의식의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구호만 외치는 국제화는 이제 그만하고, 개인의 무한한 노력과 경쟁력이 발휘되어 우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는 학자들에게 생산적인 조건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국제화는 먼저 대학의 내실화를 착실히 진행시키면서 미래적이고 생산적인 연구결과와 성취가 있도록 대학의 운영을 크게 개선하고 과학적인 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 진입위한 필수과제

국제화는 각 대학에 외국의 유학생들이 30%까지 채워질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촉진제를 주어 대학의 탈바꿈과 개혁을 유도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과 교수들은 강의와 불필요한 일 등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있으므로 대학행정의 생산적이고 목적적인 운영관리(management by objective and motivation)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문화국민이 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우선 대학의 선진화와 국제화없이 는 결코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인적자원이 있으며, 'can do' 정신력과 실천은 우리 대학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화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①